

차세대 전투기 독자개발 중국, 2천년계 실전 배치

중국은 차세대대 주력전투기를 독자 개발해 지난해 10월 중순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서 시험비행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日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인 군사평론가의 말을 인용, 이 전투기에 러시아製 미그29 전투기와 같은 엔진을 장착했을 가능성이 크며 구형 미그21기를 바탕으로 한 현재의 주력전투기 F-8 시리즈에 대신하는 신예機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특히 중국정부가 러시아로부터 이미 고성능의 수호이27 전투기 26대를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소형으로 값이 싼 미그29기를 단 한대도 구입치 않고 있는 것은 이같은 독자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또 미그29기보다 더 가벼운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지난 80년대 미국의 원조로 개발을 시도했던 전투기 제작기술이 도입됐

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이 전투기는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항공기공사에서 개발되고 있다.

이들 2개 기종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는 2000년대에 실전 배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침체 못면할듯

美방위·항공·우주산업계
3개 업종
매출 1,094억 달러 전망

미국의 방위 항공 우주산업은 올해에도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美항공우주공업회(AIA)가 내놓은 95년 업계전망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종은 과거 2년에 비해 침체도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업계전체의 매출은 전년대비 3% 감소한 1천94억달러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고용도 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 우주 항공업체의 매출은 91년 1천3백92억달러를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0.4% 감소했고 금년에는 9.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최근 2년간 수요침체폭이 크다.

한편 방위산업중 내년에 최대의 침체가 예상되는 부문은 미사일로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9.6% 감소한 66억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일본제 전투기 첫선

1천회 시험비행예정
록히드와 공동개발

미쓰비시사의 FS-X(지원 전투기) 1호 원형기가 1월 12일 Roll-out 되었으나, 향후 방위비 지출 및 구매 대수에 대하여는 불확실한 상태이다.

단발 엔진 장착기로 F-16에 기초를 두고 Lockheed사와 3270억엔의 비용을 투입 공동개발하였으며, 금년 3/4분기중 시험비행을 거쳐 96년 3월에 일본 방위청에 인도될 계획으로 있다.

2대의 직렬 복좌형 훈련기를 포함하여 4대의 원형기를 생산할 계획이며, TRDI(일본 방위청 기술연구개발원)와 공군 참모부는 시험 및 작동 평가를 위한 1,000회의 시험비행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이와 더불어 TRDI는 두대의 기체를 6,000시간의 구조 및 피로 시험을 위하여 사용할 계획이라고 한다.